

광주·전남 지방의회 내년 의정비 잇단 동결

시·도의회 이어 북구·남구·함평·화순·영광군의회도

광주·전남지역 내 지방의회가 앞

다퉈 내년 의정비를 동결하고 있다.

불황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과 고통

을 분담하겠다는 게 이유다.

광주시의회는 12일 시의원들은 12

일 전 의원 간담회를 열고 지방세수

감소와 경기침체로 경제가 어려운 점

을 감안해 내년도 의정비 동결을 만

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의원 의정비는 지난해 4960

만원에서 2.5% 인상된 5084만원이

다. 광주시의회 의정비는 광역지방의

회 중 최하위다.

앞서 전남도의회도 지난 11일 의원

총회를 열고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하

기로 했다. 현재 1인당 의정비는 5080

만원이다.

전남도의회는 2008년 이후 4년째

의정비를 동결하다 지난해 7% 인상

한 바 있다.

광주 북구의회도 최근 의원 만장일

치로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와 같은

3645만5000원으로 책정했다.

남구의회도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

를 감안해 동결을 검토하고 있고,

(3470만원)와 같은 금액으로 정했다.

함평군의회(3162만원), 화순군의회

(3144만원), 영광군의회(3097만원)

도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했다.

장흥군의회는 의정비를 3년 연속

동결했고, 강진군도 2년 연속 동결했

다. 일부 의회도 의정비 동결 움직임

을 보이고 있다.

곡성군의회는 다른 의회 분위기

를 감안해 동결을 검토하고 있고,

광주 광산구의회도 동결해야 한다

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각 지방의회의 의정비 동결

결정에 따라 장흥군은 의정비 심의위

원회 개최, 여론조사, 공청회, 조례개

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됨으로

써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취득세율 인하 지방재정 확충 대책 촉구

광주시의회 결의안 채택

온 전체 세수의 21% 수준으로 선진국보다 매우 낮은 만큼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재원 확충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정부가 지방 자주재원인 취득세를 정책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 편의정책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지방정부

정현애 “문화전당내 5·18유적 관리해야”

광주시의회 정현애(민주·비례) 의원은 12일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공사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철거되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 유적에 대해 특단의 보전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광주시는 수거 가능한 잔해물을 수거하고 5·18 사적지에 대한 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도청본관~강골구조물~보존별관을 연결하는 하는 통로와 보존 건물의 활용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보현 “광주 디자인 산업 정책 협구호”

광주시의회 김보현(부·서구 2) 의원은 12일 열린 광주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6월과 7월 5·18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별관 일부와 수위실이 철거됐다”며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추진단은 5·18 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등에 어떤 통보도 없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디자인비엔날레도 50억원이 투입되고 20개

국 358개 디자이너와 기업이 600

여 개의 작품이 선보이고 있지만

지역 디자인기업이나 지역 디자

인협회의 참여가 전무하다시피

하다”고 주장했다.

조오섭 “RDF사업자 선정 투명성 확보해야”

광주시의회 조오섭(민주·북구 2) 의원은 12일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RDF) 사업자 선정 방식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합리적 평가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민선 5기 광주시의 대형공사 입찰과 관련해 잡음과 비리가 유난히 많이 발생했고 2개

컨소시엄이 참여한 이번 RDF 사

업자 선정을 앞두고도 벌써 시중

에 다양한 소문들이 나돌고 있

다”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



한치 양보없는 中·日 해상전

일본의 센카쿠(중국명 다오우다오) 국유화 조치 1주년인 11일(현지시각) 중국 해경선 2506호(위)가 센카쿠 해역에 모습을 나타내자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 가토리호가 따라붙어 평행으로 항해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바다, 日 방사능 영향 없어”

해수부 분석 “국산 수산물 믿고 먹어도 돼”

해양수산부는 일본과 인접한 해역 6곳의 바닷물을 분석한 결과 일본 방

사능 오염수의 영향이 전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해수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달 일본 인접 해역의 바닷물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인공방사성 물질

인 세슘은 전혀 검출되지 않았거나 최대 0.0017Bq/kg의 미량만 검출

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인공 방사성 물질이 가장 많이 검출된 해역의 세슘

농도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 5년

간 평균치 이내에 해당한다”며 “우리

나라 앞바다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한국 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기존 27개 해역에서

분기별로 실시하던 방사능 검사를 제주도 최남단 동중국해역 4개 지점은 월 2회, 율동도 인근 중북부해역 2개

지점은 월 1회 검사하기로 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고등어, 삼치 등 연안 어종 10종과 오징어, 참조기 등 베타적폐제수역(EEZ)내 어종 8종을 채집해 방사능 오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인공방사성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우리나라 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국산 수산물을 믿고 먹어도 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한국 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기존 27개 해역에서

분기별로 실시하던 방사능 검사를 제주도 최남단 동중국해역 4개 지점은 월 2회, 율동도 인근 중북부해역 2개

지점은 월 1회 검사하기로 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신하 한미연구소가 운영하는 북한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는 지난달 31일 활영한 상업용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잡정 결론을 도출했다고 11일(현지시각) 밝혔다.

이는 북한이 지난 4월 재가동을 선언한 이후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것

이라는 관측보다 앞당겨진 것이다. /연합뉴스

“北, 영변 원자로 지난달 하순 재가동 한 듯”

미 존스홉킨스대 ‘38노스’

북한이 핵무기 1개 분량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영변의 5㎿급 가스흡연 원자로를 지난달 하순부터 재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신하 한미연구소가 운영하는 북한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는 지난달 31일 활영한 상업용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잡정 결론을 도출했다고 11일(현지시각) 밝혔다.

원자로는 노심의 핵반응에서 나오는 열기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며 그 과정에서 터빈을 통해 증기가 생성된다. 이에 따라 영변 원자로에서 나오는 흰색 증기는 해당 원자로가 재가동되고 있는 지표로 볼 수 있다

는게 38노스의 분석이다. 다만 이 흰색 증기는 과거와 달리 원자로의 냉각탑에서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38노스는 밝혔다. /연합뉴스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m²(8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면적 약 150평~420평(분할·합병 가능)

현 토목공사 90% 진행 중

70% 분양완료!

- 1. 분양면적은 전세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 2. 각 필지별 상·하수도 관리 연결공사 완료
-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 세금 납부 완료)
- 4. 각 필지별 6m 도로 접

찾아오는 길
선운자구
영광
호남대학교
어등산 빌리지

도시 속 친환경 명품 주거 타운
선운공인중개사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 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첨단 월계동 건물 매 27억(보증금 2억8천, 월 1,600만)

첨단 월계동 건물 매 36억

사우나 건물(8층) 매 17억 5천(보증금 8천, 월 800만)

두암동 5층 건물 매 8억 5천

첨단 구분점포 105㎡ 매 8억 6천(보증금 8천, 월 430만)

예식장 건물 65억(병원, 교회 등 다목적 이용 가능)

대지/전답

나주 혁신도시 인근 토지 7,800㎡(구 2,400평)

3.3㎡당 80만원

광산구 신창동 생산녹지 1,980㎡ 매 6억 5천(창고, 공장 적합)

완도군 약산면 11,000㎡ 매 8억 4천(펜션, 귀농지, 전원주택용지 적합)

장흥군 장평면 13,165㎡ 매 3억 5천(대 660㎡, 신축주택 포함)

장흥군 용산면 101,851㎡ 매 6억(연수원, 요양병원, 관광농원 적합)

여수 돌산읍 전 1,874㎡ 매 2억(바다전망, 전원주택, 펜션 적합)